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9/11(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9/10(火) 11:00부터**

※ 문의 : 금융세제팀 권혁부 팀장(6050-3891), 유성필 대리(6050-3894)

韓 금융산업 경쟁력, 금융 선진국 대비 '6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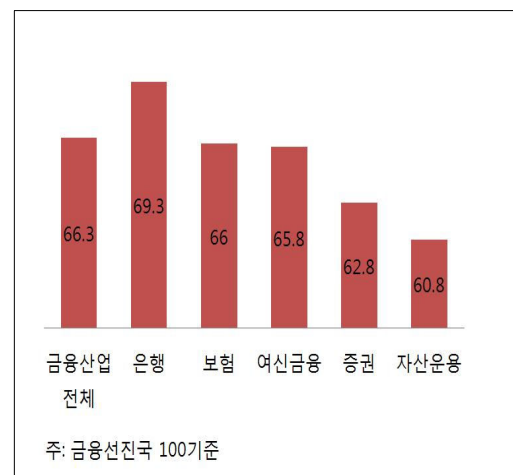
- 대한상의 조사 ... 업종별 경쟁력 : 은행(69점), 보험(66점), 여신금융(66점), 증권(63점), 자산운용(61점) 순
-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38%), '美 출구전략 실시'(26%) 순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금융규제 완화'(46%), '전문인력 확보'(20%), '인프라 확충'(15%) 해야
- CEO 10명중 6명 "개정 자본시장법 긍정적 효과 예상" ... 'IB활성화'(36%), '인프라 선진화'(23%) 기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 대비 66점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150개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금융산업 미래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을 100점이라고 할 때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평균 66.3점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전 업종이 70점을 밑도는 가운데 은행 69.3점, 보험 66점, 여신금융 65.8점, 증권 62.8점, 자산운용 60.8점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금융기관 CEO가 본 금융산업 경쟁력



대한상의는 “국내 금융산업은 세계 15위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금융기관 규모의 영세성, 국내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으로 CEO들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따른 수익 기반 약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미국의 단계적 출구전략 실시(25.6%), '회사채 시장 등 자본시장 경색(15.3%),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추세(13.3%), '중국경제 성장 둔화(8.3%)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한상회의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수익구조를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들의 경영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완화와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금융사들은 고비용 체질을 개선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46.4%)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 전문인력 확보(19.9%), '금융 관련 인프라 확충(15.2%),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사 수익구조 다변화(11.3%), '금융사 규모의 대형화(7.2%)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투자은행(IB) 활성화,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대다수 CEO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61.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이다(13.9%)는 답변을 크게 앞섰으며, <'별 영향 없다' 24.7%> '투자은행 활성화 기반 마련'(36.4%), '시장 인프라 선진화(22.8%),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18.2%)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자금 조달수단 다양화' 13.3%, '투자자 보호 강화' 9.3%>

또,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33.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 인프라 개선 및 확충(23.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18.9%), '글로벌 인력 양성(16.5%),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8.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향후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는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경쟁 심화’(37%),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2.3%), ‘금융의 사회적 책임 수행’(19.6%), ‘스마트 금융의 보편화’(12.4%) ‘비용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8.7%)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금융산업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서비스 산업”이라면서 “기존의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금융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 선진화, 신흥국 시장 진출 등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실릴 것으로 예정된 정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1.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경과

- 2011년 7월 :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 2011년 11월 : 정부 입법절차 거쳐서 국회 제출
- 2012년 5월 :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 폐기 및 다시 입법 예고
- 2012년 6월 :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제출
- 2013년 4월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4.30)
- 2013년 8월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13.8.29)

2.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

- 금융투자산업 활성화(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등)
-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대체거래소 및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신용평가업 규제 자본시장법 이관 등)
 - ※ 대체거래소(ATS):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위임장 권유규제 개선 등)
 - ※ 조건부 자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로서 발행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
- 투자자 보호 강화(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선진화, 인수·공시 관련 제도 개선)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8. 16(금) ~ 8. 27(화)
- 조사대상 : 금융기관 CEO 150인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여신금융)
- 조사방법 : 팩스 및 전화